

## 교육 과정 평가표 (일지 정독)

평가자 : 류지형 (서명)

1. 일지를 읽으며 감동·감사한 내용을 5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① 은성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니 은성을 바꿔주셨다.

“은성아”라고 불으니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씩씩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인수씨와 잠깐 통화를 나눈 뒤 다음에 통화하기로 했다.

② “엄마, 학교에서 연극 본다.”

“엄마, 소풍간다.”

“엄마. 널 공개 수업하는데 언제 와?”

어머니와 통화하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성이 엄마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가고 운동회하면 제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소풍간데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할게요!”

어머님은 멀리 있어 함께 하지 못 하지만 전화통화로 은성을 챙겨 줍니다.

③ 은성이 다닐만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

먼저 주변에 정보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한 분이 생각한다. 은성이와 의논하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온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몫이라 여기고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행동했습니다. 선생님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주력하여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해야 할 관계는 당사자 쪽 관계입니다.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 사이의 관계, 당사자와 이웃의 관계, 당사자와 가족·친지의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야말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탱하는 근본관계요 항산적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와 당사자의 관계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복지요결)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관계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다. 그 관계가 강해질수록 당사자 쪽의 관계는 약해지기 쉽다. 사회사업가에게 의존하던 삶을 한순간 바꿔야 한다면 당사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사업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사자 쪽의 관계를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약자를 돕게 하되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도우며 더불어 살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복지요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은성을 데려간다면 나와 은성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것이다. 하지만 거창

지역 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은성이를 도울 선의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빼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다. 그 사람이 은성이를 잘 돕도록 거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더욱 내 할 일이 명확해진다.

"상대방과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논쟁이나 자기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저항을 초래하기 쉽고 심하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와 질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에서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복지광세 211p)

④ 조금 전에 빌라 도착해서 은성이 잠자리 봐주고 나왔습니다. 저녁 데이트도 좋네요. 그리고 은성이가 방학때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다는데 부산에 있는동안 함께 가주실수 있나요? 외출이 힘들면 제가 하루 출장내서 가도 되구요. 은성이라도 불결해서요.^^" (임우석, 1.9, 21:00)

⑤ 학교 다녀오면 부뚜막에 앉아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떠들던 아이의 모습. 은성이라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은성아 오늘 학교에서 뭐했어?"

"어... 노래했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했어?"

"공부 했지요. 뭐."

"무슨 공부?"

"한글 공부요."

자세하게 무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은성이가 '사랑받고 있다',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루에 10분. 실천해보자.

⑥ 방으로 가서 로션을 바른다. 얼굴은 스스로 바르지만 손이 닿지 않는 등, 엉덩이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은성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일지를 읽고) 앞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이것은 꼭 적용해야겠다.' 혹은 '이것은 명심해야겠다.' 고 다짐한 것은 무엇입니까? 5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 ① 안부전화(1)

(3월 2일) 개학날이 다가와 부모님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3월10일 이후가 되어야 학교를 갈 수 있겠다면서

은성이는 지금 사촌형이랑 병원에 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가게가 바쁘신 이유로 빨리 끊었습니다.

→ 사촌형 여부 ⇒ 친척들의 연락처를 알아본 후 저장한다.

② #창동초등학교 방문

2011년도 도움반 임정숙 선생님께서 통합반 4학년 1반 담임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문정숙 선생님과 황경숙 보조 선생님과 이야기

→ 둘레사람 목록을 다시 업데이트 하고 연락처를 알아본다.

③ 은성이는 칭찬을 들으면 뭐든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탈 수 있다고 자랑했다.

→ 나이에 맞게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과 시간이 지남에 익숙해진 탓인지 점점 칭찬이 줄어들었다. 다시 모든 일에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다.

④ 학교 선생님께 노래 발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성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를 묻습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다보면 선생님께 듣지 못한 전달사항을 알게 됩니다.**

**은성이 스스로 학교 일정을 챙깁니다.**

⑤ 2013년 지원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성아 올해 하고 싶은 일 이야기 해 볼래?"

"음..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는 안되겠고, 영어도 안되겠다. 조금 가고 싶어요."

"이래 물뿌리는 것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야 화분을 키우고 싶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부산 집에 테레비도 사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가서 예배도 보고, 밥도 먹고, 인사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채연이(은성이 동생) 하고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전동휠체어도 타고 싶어요. 장난감 휴대폰도 사고 싶어요."

"은성아 어제 저녁에 한 것처럼 매일 매일 어머니한테 오늘 뭐했는지 문자 보내는 건 어때?"

"네. 좋아요."

→ 현재 서은성 씨는 컴퓨터학원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화분도 직접 키워봤습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야기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해 고려해봐야겠습니다.

⑥ 목욕을 다하면 바닥청소를 하고 싶다고 한다. 샤워기를 쥐어주면 바닥 여기저기를 청소한다. 칫솔 행구는 것과 바닥청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